

#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

## Ethical Dilemmas in Teacher-librarians' Professional Practice

정진수(Jin Soo Chung)\*\*

###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토론    |
| 3. 연구방법   | 6. 결론    |

### 초 록

본 연구는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하여 현황과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내용을 틀로 윤리적 딜레마 경험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에 259명의 사서교사가 참여하였고, 5명의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반 구조적 인터뷰를 수행하여 직접경험 사례를 수집하였다. 기술통계와 인터뷰 전사자료의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들은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검열에 관하여 가장 많은 경험을 딜레마 경험을 하였다. 둘째, 사서교사들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셋째, 사서교사들은 지식재산권 준중과 이용자와 권리자 간 균형 추구에 관련하여 그 중요성은 잘 알지만 실제 사례에 당면하여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넷째, 사서교사들은 사서교사 전문성 함양 분야와 학교에서 원하는 사서교사상 간의 차이로 인해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다섯째, 사서교사들은 대출반납 업무와 학생 개인 대출 정보 공개에 관한 딜레마가 있었다. 여섯째, 사서교사들은 학교교육시스템과 도서관운영의 관습관련 딜레마가 있었다. 특히, 윤리적 딜레마 사례는 각각 맥락의존적으로 사서교사들의 균형적 판단이 중요함이 나타났다. 향후 윤리적 딜레마에서 사서교사의 균형적 판단을 위한 지점과 대처에 대한 도서관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ethical dilemmas of teacher-librarians in their professional practice. Within the framework of "Librarians' Statement of Ethics" by Korean Library Association, the study used the survey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teacher-librarians. 259 teacher-librarians responded the survey and 5 teacher-librarians participated the interview. The survey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o find how often teacher-librarians experience ethical dilemmas.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was transcribed and analyzed to draw the individual cases of teacher-librarians' ethical dilemmas. The results indicate that teacher-librarians experience ethical dilemmas in relation to information access and intellectual freedom most often. It was difficult for teacher-librarians to relate their professional duties with their expertise and that they were not clear on how to avoid copyright issues and how to deal with the balance between users and copyright holders. This study had implications that individual dilemma cases are so context-dependent that teacher-librarians had to make decisions individually. They tried hard to find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students from harmful resources and library ethic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need focus more on finding where the balance is and how teacher-librarians deal with their ethical dilemmas.

키워드: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윤리적 딜레마, 도서관인 윤리선언

Teacher-librarians, School Librarians, School Libraries, Ethical Dilemma, Code of Ethics

\* 본 논문은 2019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jschung@duksung.ac.kr / ISNI 0000 0004 6327 3049)

논문접수일자: 2021년 1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21년 2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2월 1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161-180, 2021. <http://dx.doi.org/10.4275/KSLJIS.2021.55.1.16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전문직 윤리는 해당 전문직이 지키고자 하는 기본가치를 반영하며 전문직 윤리의 원칙은 전문직 분야 내 다양한 가치 가운데 우선하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체계화된다(Froehlich 2000).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과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를 비롯한 국외의 많은 도서관 단체들은 일찍부터 도서관 윤리를 강조해왔으며 사서와 정보전문가들을 위한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제정하여 발표였다. 한국도서관협회 역시 『도서관인윤리선언』을 1997년에 제정하고 2019년에 개정 발표하여 사서들의 지켜야할 도서관의 윤리적 가치를 명문화하였다.

전문직 분야의 철학은 해당 전문직의 기반(foundation)을 다지고 윤리는 경계선(walls)을 구축한다(Simpson 2003). 도서관 현장에서는 경계선 언저리를 넘나드는 다양한 가치의 갈등이 발생한다. 국내 도서관계는 최근 개정된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을 통해 도서관인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을 알렸지만, 사서들이 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직접 경험할 때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이 자율적 규제를 위한 규범적 틀로서 영향을 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리적 딜레마는 “조직 내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취한 행동이 올바른지 또는 올바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한 상황”(국립국어원 2021)이라고 정의된다. 특히, 학교도

서관은 타 관종의 도서관과는 다르게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도서관이 만나는 공간이므로 교육과 도서관이 추구하는 가치가 충돌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균형과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학교도서관에서 이용자와 정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서교사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한다.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도서관의 기본적 가치를 반영한 윤리 원칙이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 설치된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이러한 윤리적 원칙이 어떻게 지켜지고 교육 현장과 타협되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서교사들이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 현황과 사례를 조사·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2. 이론적 배경

### 2.1 도서관인의 전문직 윤리

“윤리강령”(code of ethics)은 직업 내에서의 규약 또는 관계를 칭하는 표현으로서 해당 분야 직업인들이 지켜야할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윤리 준수를 위한 ‘윤리강령’은 ‘윤리선언’보다 강력한 자율규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 전문직군인 의사들의 경우, 의사윤리선언, 의사윤리강령, 그리고 의사윤리지침 세 가지를 모두 제정하고 배포하다가 2006년에 의사윤리선언은 폐지하고 직접적으로 자율 규제를 하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지침만을 유지하여 이것을 사용한다(이명진 2013).

도서관계의 첫 윤리강령은 1939년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 개발하여 채택된 『사서들

을 위한 윤리강령』이며 이후 현재까지 약 60개국의 도서관협회에서 윤리강령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IFLA 2020). 이 가운데 한국도서관협회(2019)의 『도서관인윤리선언』, IFLA(2012)의 『사서와 정보 종사자들을 위한 윤리강령』, ALA(2008)의 『전문직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한국도서관협회(2019)는 윤리강령이 아닌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제정하고 배포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이 선언이 관중과 관계없이 범 도서관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적 기준이 된다. 당연히, 학교도서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은 아래와 같다.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3.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적극 보호한다.
4. 도서관인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도서관인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한다.
6. 도서관인은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관습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IFLA(2012)는 개인 사서들의 윤리적 결정

에 대한 원칙뿐 아니라 각국의 여러 도서관 단체들이 윤리강령 개발의 원칙으로 안내되도록 『사서와 정보 종사자들을 위한 윤리강령(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윤리강령의 핵심 가치는 간략본과 상세본 문서에 설명이 추가되었다. IFLA(2012) 윤리 강령의 주요 키워드는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1. 정보접근(Access to information)
2. 사회와 개인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ies towards individuals and society)
3. 개인 사생활과 비밀유지, 투명성(Privacy, secrecy and transparency)
4. 오픈 액세스와 지적 재산권(Open access and intellectual property)
5. 중립성, 개인적 진실성과 전문기술(Neutrality, personal integrity and professional skills)
6. 동료와 고용주/고용자 사이의 대인 관계(Colleague and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IFLA(2012)는 윤리강령을 제작 및 배포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강조하였다. 첫째, 윤리강령은 사서와 정보 종사자가 딜레마를 잘 대처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원칙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고, 둘째, 전문인으로서 자기 인식을 개선하며, 셋째, 사회와 일반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윤리에 관한 투명한 철학을 전달한다.

ALA(2008)의 사서 윤리강령은 1939년에 첫 제정 이후 1981년, 1995년, 2008년의 3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의 윤리강령에 이르렀다. ALA(2008)는 『전문직 윤리강령』이 윤리적 의사결

정의 원칙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나 각 특정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래는 ALA (2008)의 『전문직 윤리강령(Professional Code of Ethics)』 전문이다.

1. 우리는 모든 요구에 적절하며 유용하게 정리된 자원, 평등한 서비스 정책, 평등한 접근, 그리고 정확하며, 편견 없는 정중한 응답을 제공한다.
2. 우리는 지적 자유를 수호하며 도서관 자원 검열을 모든 노력에 저항한다.
3. 우리는 추구하는 정보와 관련되거나 대출, 열람, 이동과 관련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성을 보호한다.
4.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이용자와 저작권리자의 이익간의 균형을 지지한다.
5. 우리는 존중, 공정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동료 를 대하며 조직의 모든 고용인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조건을 지지한다.
6. 우리는 도서관 이용자, 동료, 그리고 직장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다.
7. 우리는 개인의 신념과 전문직 의무를 구분하며 우리의 개인 신념이 조직의 목적 또는 정보 자원의 접근 제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8. 우리는 지식과 기술을 유지 및 강화하고 동료들의 전문 개발을 격려하며, 전문직에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 회원의 포부를 길러줌으로써 전문 직군의 수월성을 위해 노력한다(ALA 2008).

ALA의 윤리강령은 산하 모든 관종의 도서관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윤리 원칙이다. ALA 산하 미국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AASL) 역시 사서교사들에게 ALA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 예로 AASL은 윤리강령에 명시된 지적자유 원칙을 안내하는 『지

적자유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ALA의 윤리강령을 재차 강조하였다.

앞서 언급한 주요 윤리강령을 포함한 도서관 윤리강령들은 공통적으로 네 가지 수준의 윤리적 원칙을 강조한다(Bopp and Smith 2011, 55).

- 개인적 수준: 사서는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개인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
- 조직적 수준: 사서는 소속기관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 전문직 수준: 사서는 인정된 전문단체에 의해 확립된 전문적 행동기준을 증진시킬 윤리적 의무가 있다.
- 사회적 수준: 사서는 모든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전체의 최고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 환경은 기술의 발달 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윤리강령이 제시하는 원칙을 도서관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은 이전과는 다른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외 프라이버시, 정보접근의 격차 등의 문제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은 새로운 딜레마를 발생시키고 윤리강령에 따른 판단을 어렵게 한다.

## 2.2 교사의 전문직 윤리

교사는 미성년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통상적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 법적으로 최소한의 윤리가 강

제된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정치적 중립의 의무, 성실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청렴 의무, 영리적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법적 의무에 더하여 교원단체에서 교사들의 윤리성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윤리 원칙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자율규제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윤리헌장』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십계명』을 제정하여 소속 단체 교사들에게 교직윤리의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교직 윤리는 공통적으로 (1) 교사자신의 윤리(책임감, 사명감, 도덕성, 교육관), (2) 학생과의 관계 속 윤리, (3) 교원 상호간의 윤리, (4) 학부모 및 사회 윤리를 강조한다(황영준, 정창호 2014).

### 2.3 사서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선행연구

국외의 경우, ALA가 1939년에 『사서 윤리 강령』을 발표한 이후 도서관 윤리는 학계와 현장에서 모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주제였다. 사서와 정보전문가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해서는 관중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조사한 소수의 국외 연구들만이 존재하며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기가 어려웠다.

Bopp과 Smith(2011)는 자주 제기되는 도서관의 주요 윤리 문제가 (1) 접근권과 개인 및 사회의 보호, (2) 정보접근의 평등, (3) 저작권이라고 제시한다. 첫째, 접근권과 개인 및 사회의 보호에 있어 사서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적자유 원칙의 측면에서 정보서비스를 함에 있어 정치적이거나

도덕적 판단 없이 질문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만 집중해 답변하도록 강조하였다. 사실 ALA의 도서관 권리장전, 도서관인 윤리강령에서 이러한 기초의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의 평등을 위해서 사생활과 비밀보호를 보장해야 하며 차별적 서비스를 지양하도록 강조한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모호한 상황 속에서 딜레마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였다. 셋째, 저작권 문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앞으로 더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자와 권리자간의 균형을 잡도록 노력하고 사서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논의해야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사서직 윤리성에 대해 논제를 던진 초기 학자로서 Hauptman(1996)은 윤리강령이 원칙은 제시하지만 사서의 윤리적 신념이 중요함을 주장하였으며 사서의 윤리적 참고서비스의 특징을 (1) 모든 이용자를 평등하고 객관적으로 대함, (2) 개인업무의 의무가 침범 당하지 않도록 함, (3) 정보제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음, (4) 이해충돌을 피함, (5)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을 보호함, (6) 조직에서 투입한 경제적 물적 자원을 보호함, (7) 서비스 접근성과 의지를 알림, (8) 서비스 윤리를 구축함, (9) 부가가치를 제공함, (10) 자신을 이용자 요구에 따른 필수 제공자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재개발함이라고 제시하였다. Rubin(2011)은 사서들이 수행하는 참고서비스의 윤리적 이슈의 유형을 (1)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와 사회적 유해가 예측되는 개인과의 긴장관계, (2) 정보접근의 평등성과 관련 이슈, (3) 이해 충돌, (4) 프라이버시와 기밀성, (5) 서비스의 차별적 수준, (6) 지식재산권으로 제시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현장 사서와 정보전문가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들 역시 이전에 도서관 윤리에 대해 다룬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윤리적 이슈들이 사서들의 윤리적 딜레마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Ferguson, Thornley and Gibb(2016)는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사서와 관련 정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8가지 윤리적 딜레마 유형을 발견하였다. 정보접근 대 검열, 정보접근 대 사생활 보호, 정보접근 대 지적 재산권 보호, 정보접근 대 사회적 의무, 사생활 보호 대 개인과 사회의 잠재적 위해, 사생활보호 대 조직의 기풍 또는 요구, 정보접근 대 조직의 기풍 또는 요구, 윤리 대 법이 그것이다. Luo(2016) 역시 관종의 구분을 하지 않고 사서들의 이메일 리스트를 통해 수집한 윤리적 딜레마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저작권 이슈, 기밀성과 프라이버시 이슈가 전체 사례의 약 60.4%, 약 59.4%를 각각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지적 자유와 검열 관련 이슈, 정보 접근과 서비스의 평등 관련 이슈, 그리고 이해충돌 이슈 순서로 집계되었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윤리강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윤리적 딜레마는 맥락 의존적(Ferguson, Thornley and Gibb 2016)이며 윤리적으로 회색 지대(Luo 2016)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 조직의 관심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 “균형”이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 사서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서의 소속 기관의 해석이 사서 개인과 전문직 단체의 윤리강령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Luo 2016).

### 3. 연구방법

#### 3.1 연구방법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법과 반 구조적(semi-structured) 인터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네이버 폼으로 작성된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259부의 유효한 설문조사 답변이 수집되었다. 인터뷰는 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11월 26일에는 3명의 사서교사, 27일에는 2명의 사서교사들과 양일간 각 2시간씩 실시하였다. ZOOM을 이용한 인터뷰 동영상 녹화는 참여자의 승인을 받고 인터뷰 후 한글 파일의 약 80쪽 분량으로 전사되었다.

#### 3.2 연구 참여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사서교사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설문조사 링크를 올려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였고 총 259명의 사서교사가 익명으로 응답하였다. 인터뷰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목적, 일정, 방법을 소개한 글과 함께 6개의 인터뷰 질문을 사서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총 5명의 사서교사가 인터뷰 참여를 자원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하였던 5명의 사서교사에게 인터뷰 전후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약속하였다. 첫째, 참여 사서교사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 둘째, 차후 연구 결과를 보고할 논문에도 사서교사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

겠다는 것, 셋째, 논문 발표가 끝나면 수집된 인터뷰 동영상 파일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이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도록 요청한 것이고 경험 중에는 민감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서 솔직한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호 차원의 약속이었다.

### 3.3 설문지 문항 설계

설문지 문항은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의 여섯 가지의 선언 내용을 틀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하였다.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표 1>과 같이 참여자 배경 문항 3개와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기재된 6개의 선언 내용과 관련 경험 정도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는 경험 정도를 4점 척도를 사용하여 ① 자주 경험한다, ② 때때로 경험한다, ③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④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

시하도록 하였다.

### 3.4 인터뷰 질문지 설계

인터뷰 질문지 역시 설문조사 문항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의 6개 선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의 목적은 관련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었으므로 선언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로 경험한 딜레마를 묻는 인터뷰 문항이 구성되었다. 질문지는 총 6개 질문이 구조적으로 구성되었지만 인터뷰 시 필요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거나 추가 질문을 하는 등 반구조적(semi-structured)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 3.5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총 259부의 설문지가 모두

<표 1> 설문조사를 위한 문항 설계

| 문항 번호 | 문항 내용   |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과의 관련성 |
|-------|---|-------------------------------|
| 1-3   | 소속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급, 근무 기간                                 | 배경 정보                         |
| 4     |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금지와 관련된 경험 정도    | 도서관인 윤리선언 1번                  |
| 5     |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 배제,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검열 반대 관련된 경험 정도 | 도서관인 윤리선언 2번                  |
| 6     | 도서관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적극 보호 관련 경험 정도      | 도서관인 윤리선언 3번                  |
| 7     |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 관련 경험 정도    | 도서관인 윤리선언 4번                  |
| 8     |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권리자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 관련 경험 정도  | 도서관인 윤리선언 5번                  |
| 9     |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 관련 경험 정도      | 도서관인 윤리선언 6번                  |

유효한 응답지를 수집하였으며 엑셀파일로 코딩되어 기술통계법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사서교사들의 윤리적 딜레마 경험 현황을 양적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녹화된 비대면 ZOOM 인터뷰는 총 80쪽 한글 파일 분량으로 전사되었으며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여 윤리적 딜레마 경험 사례를 도출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응답자 특성

설문 응답자들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사서교사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경기도 사서교사 77명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뒤를 이어 서울 57명, 강원 15명, 경남 13명, 전남 12명, 대전과 인천 각 11명, 충남 10명, 부산 9명, 대구와 울산 각 8명, 광주 7명, 경북과 전북 각 6명, 충북과 제주 각 4명, 세종 1명으로 총 259명의 사서교사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초등학교 사서교사는 110명, 중학교 사서교사는 53명, 고등학교 사서교사는 96명으로 초등학교 사서교사가 가장 많았다(〈표 2〉 참조). 또한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서교사는 93명, 2년 이내 사서교사 86명, 2년에서 5년 사이 사서교사가 44명, 5년에서 10년 사이인 사서교사가 36명으로 응답자의 근무기간은 다양했다(〈표 3〉 참조). 인터뷰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은 총 5명으로 초등학교 사서교사 1명과 고등학교 사서교사 4명이었다. 사서교사 근무 경력은 5년에서 10년 사이 1명, 10년 이상 4명이었다.

〈표 2〉 학교급별 설문 응답자의 수와 비율

| 학교급  | 응답자 수 | 응답률(%) |
|------|-------|--------|
| 초등학교 | 110   | 42.5   |
| 중학교  | 53    | 20.5   |
| 고등학교 | 96    | 37.1   |

〈표 3〉 근무년수별 설문 응답자의 수와 비율

| 근무년수        | 응답자 수 | 응답률(%) |
|-------------|-------|--------|
| 2년 이내       | 86    | 33.2   |
| 2년에서 5년 사이  | 44    | 17     |
| 5년에서 10년 사이 | 36    | 13.9   |
| 10년 이상      | 93    | 35.9   |

### 4.2 윤리적 딜레마의 경험 정도에 관한 응답 통계

응답자들은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의 내용별 윤리적 딜레마 경험 정도에 대해 〈표 4〉와 같이 응답했다. 응답 결과, 대체로 윤리선언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경험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경험을 자주하거나 때때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많았다.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관련 윤리적 딜레마 경험을 비롯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존중 및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 추구, 전문지식 습득과 응용 노력, 개인의 관심에 우선한 도서관 발전 노력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의 경험은 모두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와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자주 경험한다”와 “때때로 경험한다”보다 많았다.

그러나 “도서관인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표 4〉 윤리적 딜레마의 경험 정도 응답 통계

| 번호         | 윤리선언 내용별                     | 윤리선언 내용별   |                     |        |          |
|------------|------------------------------|------------|---------------------|--------|----------|
|            |                              | 선택문항       | 응답수                 | 응답률(%) | 경험 비율(%) |
| 1          | 이용자의 신념에 따른 차별               | 자주 경험      | 10                  | 3.8    | 33.1     |
|            |                              | 때때로 경험     | 76                  | 29.3   |          |
|            |                              | 거의 경험하지 않음 | 93                  | 35.9   | 66.7     |
|            |                              | 전혀 경험하지 않음 | 80                  | 30.8   |          |
|            |                              | 2          |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      | 자주 경험  | 9        |
| 때때로 경험     | 32                           |            |                     | 12.4   |          |
| 거의 경험하지 않음 | 87                           |            |                     | 33.6   | 84.2     |
| 전혀 경험하지 않음 | 131                          |            |                     | 50.6   |          |
| 3          | 이용자의 연령에 따른 차별               |            |                     | 자주 경험  | 11       |
|            |                              | 때때로 경험     | 65                  | 25.1   |          |
|            |                              | 거의 경험하지 않음 | 81                  | 31.3   | 70.7     |
|            |                              | 전혀 경험하지 않음 | 102                 | 39.4   |          |
|            |                              | 4          | 이용자의 장애에 따른 차별      | 자주 경험  | 7        |
| 때때로 경험     | 73                           |            |                     | 28.2   |          |
| 거의 경험하지 않음 | 82                           |            |                     | 31.7   | 69.2     |
| 전혀 경험하지 않음 | 97                           |            |                     | 37.5   |          |
| 5          | 이용자의 인종에 따른 차별               |            |                     | 자주 경험  | 5        |
|            |                              | 때때로 경험     | 16                  | 6.2    |          |
|            |                              | 거의 경험하지 않음 | 56                  | 21.6   | 91.9     |
|            |                              | 전혀 경험하지 않음 | 182                 | 70.3   |          |
|            |                              | 6          | 이용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 자주 경험  | 15       |
| 때때로 경험     | 63                           |            |                     | 24.3   |          |
| 거의 경험하지 않음 | 77                           |            |                     | 29.7   | 69.9     |
| 전혀 경험하지 않음 | 104                          |            |                     | 40.2   |          |
| 7          | 자신의 편견 배제,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검열 반대 |            |                     | 자주 경험  | 14       |
|            |                              | 때때로 경험     | 130                 | 50.2   |          |
|            |                              | 거의 경험하지 않음 | 86                  | 33.2   | 44.4     |
|            |                              | 전혀 경험하지 않음 | 29                  | 11.2   |          |
|            |                              | 8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 자주 경험  | 19       |
| 때때로 경험     | 77                           |            |                     | 29.7   |          |
| 거의 경험하지 않음 | 106                          |            |                     | 40.9   | 62.9     |
| 전혀 경험하지 않음 | 57                           |            |                     | 22     |          |

| 번호 | 윤리선언 내용별                             | 윤리선언 내용별   |     |        |          |
|----|--------------------------------------|------------|-----|--------|----------|
|    |                                      | 선택문항       | 응답수 | 응답률(%) | 경험 비율(%) |
| 9  | 직업적 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응용을 위한 노력 | 선택문항       | 응답수 | 응답률(%) | 경험 비율(%) |
|    |                                      | 자주 경험      | 32  | 12.4   | 51.2     |
|    |                                      | 때때로 경험     | 100 | 38.8   |          |
|    |                                      | 거의 경험하지 않음 | 82  | 31.7   | 49.1     |
|    |                                      | 전혀 경험하지 않음 | 31  | 17.4   |          |
| 10 | 지식재산권 존중 및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 추구      | 선택문항       | 응답수 | 응답률(%) | 경험 비율(%) |
|    |                                      | 자주 경험      | 22  | 8.5    | 46       |
|    |                                      | 때때로 경험     | 97  | 37.5   |          |
|    |                                      | 거의 경험하지 않음 | 86  | 33.2   | 54       |
|    |                                      | 전혀 경험하지 않음 | 54  | 20.8   |          |
| 11 |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           | 선택문항       | 응답수 | 응답률(%) | 경험 비율(%) |
|    |                                      | 자주 경험      | 16  | 6.2    | 42.9     |
|    |                                      | 때때로 경험     | 95  | 36.7   |          |
|    |                                      | 거의 경험하지 않음 | 102 | 39.4   | 57.2     |
|    |                                      | 전혀 경험하지 않음 | 46  | 17.8   |          |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을 반대한다”에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는 “자주 경험한다”거나 “때때로 경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6%로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또는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인 44.4%보다 더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직업적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응용을 위한 노력”, “지식재산권 존중 및 이용자와 권리자간 이해의 균형 추구”,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한 노력”,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장애에 따른 차별”, “이용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이용자의 신념에 따른 차별”, “이용자의 연령에 따른 차별”, “이용자의 인종에 따른 차별”의 순서로 자주 또는 때

때로 경험한다라는 응답이 전혀 또는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 4.3 윤리적 딜레마 경험 사례 분석

4.3.1 이용자에 따른 차별 관련 경험 사례  
수집된 전체 사례 64건 중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관련된 경험 사례는 7건이다(〈표 5〉 참조). 특히 사서교사들이 언급한 이용자에 따른 차별 사례는 사서교사 개인의 차원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특징을 보였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는 신체장애 학생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 계단이동이 어려워 해당 장애 학생

〈표 5〉 이용자에 따른 차별 관련 경험 사례 건수

|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1번 내용    | 사례 번호                | 총 사례 수 |
|---------------------|----------------------|--------|
| 이용자에 따른 차별 관련 경험 사례 | 4, 6, 37, 38, 39, 40 | 6      |

이 있는 학급만 교실에서 도서관수업을 하게 된 사례(38번)는 해당 장애 학생이 학급의 다른 학생들의 냉대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해 사서교사의 개별지도 필요성이 요구되어 상대적으로 해당 학급의 다른 학생들을 지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서교사의 딜레마도 언급되었다(39번).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독서능력에 맞추어 다양한 수준의 장서를 확보하기 위한 도서 구입 예산이 부족하여 딜레마가 생긴다고 고백하기도 했다(37번). 이러한 사례들은 학교와 교육청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였지만 사서교사들은 교육의 현장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타협해야 했다.

사서교사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학교도서관의 대출반납 규정과 관습을 윤리선언 내용에 비추어 재고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도서부 학생들이 『도서관인윤리선언』을 보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대출기간 차이에 대해 차별이라고 문제제기 하기도 하였다(4번). 이러한 사례를 언급했던 사서교사는 교수학습에 있어 교사의 역할을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이러한 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 4.3.2 자신의 편견 배제,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 검열 반대 관련 경험 사례

수집된 전체 64개 사례 가운데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 반대한다”에 관한 윤리적 딜레마 경험 사례는 26건(〈표 6〉 참조)을 차지해 사서교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윤리적 딜레마의 유형이었다. 우리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듯 다양한 주제와 관점의 도서들을 도서관은 수집하는데 특정 주제나 관점에 대한 갈등이 이러한 딜레마로 나타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수집된 윤리적 딜레마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다.

첫째, 사서교사들은 학내 구성원인 교사, 학생들이 특정 주제 또는 시각을 담고 있는 학교 도서관 장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10대 여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주제인 연애와 이성 관계에 관한 서점판매 상위권 베스트셀러인 도서 구입에 대해 교내 일부 교사들의 반대가 있었고 이것이 학내에 알려져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까지 문제 제기가 발생한 사례이다(5번). 또한, 페미니즘 관련 특정 잡지가 급진적인 시각을 반영한다는 교내 윤리 선생님의 문제 제기를 경험한 사례도 언급되었다(7번).

둘째, 학생과 교사들이 아닌 외부인, 외부 기관 등에 의한 문제 제기 또는 접근 제한 요구에 따른 딜레마 사례이다. 일부 학부모들이 동성애 등과 같이 사회적, 종교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도서를 학교도서관이 소장하는 것을 반대하는가 하면(9번, 10번) 더 나아가 유명 문학상을 받은 어린이용 도서임에도 주인공과 주

〈표 6〉 자신의 편견 배제,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검열 반대 관련 경험 사례 건수

|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2번 내용                      | 사례 번호  | 총 사례 수 |
|---------------------------------------|--|--------|
| 자신의 편견 배제,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검열 반대 관련 경험 사례 | 1, 2, 5, 7, 8, 9, 10, 11, 12, 13, 14,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26건    |

인공의 삶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그리고 있다는 이유로 권장도서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민원도 있었다(1번). 학부모 아닌 정치인이 특정 주제 또는 특정 도서 소장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학교도서관 전체장서 목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13번). 모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는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에 수서 시 제외해야 할 도서들의 기준을 첨부하여 해당 도서들을 구입하지 말도록 안내하기도 한다(12번). 이와 함께, 과거에 발생했던 DLS 서평 도서 목록에 포함된 특정 도서를 반대한 정치단체의 문제 제기 사례가 다시금 언급되기도 했다(50번). 그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외부 기관이 학생들 대상 독서 관련 행사를 하면서 논란 있는 주제의 도서들은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하였다(52번).

셋째, 사서교사들은 스스로 도서를 검열한다고 고백하였다. 특히 동료 사서교사의 동의를 받은 사례는 소위 “문제” 작가들의 저서 처리에 관한 문제였다(49번). 사서교사들은 작가가 도서 출판 이후 작가의 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저자의 도서들을 그대로 서가에 비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한다고 하였다. 소위 “문제” 작가는 작가, 정치인, 과학자 등으로 사건 사고가 알려지기 전에는 위인전의 주인공으로 소개되기도 하여 이들이 저술한 도서들과 이들을 위인으로 묘사한 도서들이 학교 현장에서 권장되었으나 사건 사고가 알려진 후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도서들을 서가에서 제거해야 하는지가 딜레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앞서 소개했던 바와 같이 교육청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도서들을 수서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늘 스스로 도서관 장서에 대해 검열하게 된다고 고백했다(54번).

사서교사는 정보 접근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서인 동시에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시각으로 교육과정을 전달해야 할 교육자로서 딜레마가 있어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기도 하였다. 한 사서교사는 흥미 위주의 만화 등은 교육적인 요소가 없다면 구입하지 않으며 그 교육적 가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서교사 본인이 한다고 언급하였다(46번, 47번). 또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유사 역사, 특정 종교, 창조과학 등에 관한 도서 역시 구입하지 않으며 이것은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의 수서에 집중하려는 사서교사의 판단이라고 언급하였다(43번, 44번).

사서교사들은 정보 접근의 자유와 학생들의 보호자 역할 사이에서 딜레마를 경험한다. 예를 들어, 자살을 주제로 한 도서가 자살한 학생의 책상 위에 있었다고 해당 도서의 비치 여부에 대해 사서교사 커뮤니티에서 협의하고 논의했던 사례가 언급되었다(2번).

#### 4.3.3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험 사례

“도서관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적극 보호” 관련 딜레마 사례는 총 11건이 수집되었다(〈표 7〉 참조).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는 먼저 대출 반납 업무에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은 일인 운영체제여서 사서교사 일인이 도서관 전반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학생들의 교육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출

〈표 7〉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험 사례 건수

| 도서관 윤리선언 3번 내용               | 사례 번호                                     | 총 사례 수 |
|------------------------------|---|--------|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험 사례 | 3, 15, 16, 17, 18, 19, 20, 21, 22, 23, 56 | 11     |

반납의 단순 반복 업무는 종종 도서부 학생들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16번, 17번). 그런 경우 대출반납 업무 담당자가 이용자 개인의 대출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도 열람 가능한 점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딜레마 사례로 언급되었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학내 구성원이 주로 이용하여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이 대출된 경우 대출자를 확인하고자 대출자명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고 하였다(15번).

사서교사는 학교 내에서 학생 개인의 관심 주제의 대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적 딜레마가 있다고 하였다. 이 중 많이 언급된 사례가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의 대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아무래도 청소년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하여 교사들은 자살 등 어두운 주제의 도서를 자주 대출하는 학생들의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한다(18번). 또한 해당 학생에게 대출되었던 도서 중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사서교사에 의해 판단된 도서는 해당 도서의 소장 여부를 동료 사서교사들과 논의한다는 사례가 있었다(3번). 가정폭력에 관한 책만 대출하는 학생이 있어 사서교사가 개입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딜레마 사례도 언급되었다(23번). 사례를 공유한 사서교사들은 자살이나 심각한 문제 상황에 관련된 도서에 집중된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의 대출 정보를 직접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담임 교

사나 상담 교사들에게 그 학생을 “눈여겨 봐달라”고 요청한다거나 상담을 권유하기도 한다고 하였다(18번, 23번). 한 사서교사는 과거에 『도서관 윤리선언』에 따라 개입하지 않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지켜주었던 학생을 자살로 잃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교사로서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 상황은 앞으로 적극 개입하여 알리고 도움을 구하겠다고 하였다(22번).

대학 입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 결과가 좋은 학생들의 독서기록 공개를 요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능 만점학생, 의대 입학 학생, 상위권 대학의 합격 학생들의 독서기록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궁금해한다고 하여 해당 학생들의 승인을 받고 목록을 공개하기도 하고 도서 전시를 하기도 하였다(20번, 21번).

#### 4.3.4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응용을 위한 노력 관련 경험 사례

수집된 64건 사례 가운데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을 위한 노력을 한다”와 관련한 딜레마 사례는 8건이었다(〈표 8〉 참조). 사서교사들은 윤리선언에서 언급된 “직업적 책무”와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을 위한 노력”과의 연계를 만들 수 없을 때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적, 종교적으로 민감한 주제 또는 논쟁적인 주제 도서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 소지가 있어 작품성이 아무

〈표 8〉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응용을 위한 노력 관련 경험 사례 건수

|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4번 내용                | 사례 번호                          | 총 사례 수 |
|---------------------------------|--------------------------------|--------|
|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응용을 위한 노력 관련 경험 사례 | 24, 25, 26, 27, 28, 59, 60, 61 | 8      |

리 좋아도 추천을 꺼리게 된다고(24번) 고백하였으며 심지어 논쟁적 주제의 도서가 잘 검색되지 않도록 목록작업시 해당 주제어를 사용한 키워드를 넣지 않기도 했다고 하였다(25번).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일인 사서교사 체제로 운영되는 이유로 인해 딜레마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서교사의 업무가 다양하여 여러 업무 중 어떤 특정 업무에 전문성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지 딜레마가 있다고(60번) 언급하며 사서교사는 비교과 담당 교사로서 도서관 운영뿐 아니라 동아리지도, 정보활용교육 등 요구되는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스스로 중심을 잡고 “한 우물을 팔 수가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61번). 구체적으로 한 사서교사는 도서관 업무와 교육 영역 내에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싶은 부분이 장서와 관련된 업무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꼼꼼한 목록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딜레마(28번)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더하여, 일인 운영 도서관의 책임자로서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자기개발을 위한 연수를 받으려면 도서관을 휴관하거나 도서부 학생들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여 일과 시간에 연수 등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늘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27번).

4.3.5 “지식재산권 존중” 및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 추구” 관련 경험 사례

“지식재산권 존중” 및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 추구”에 관련된 딜레마 사례는 총 6건이 수집되었다(〈표 9〉 참조). 사서교사들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자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실제 사례에서는 판단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58번). 동료 교사들 역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학교 내 교육적 목적이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며(29번, 30번) “권리자와 이용자 간 이해의 균형 추구”의 개념이 모호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문화 속에서 교내 동아리 학생들이 책표지와 미술작품 등을 컬러 출력물을 하여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사서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알렸던 사례도 언급되었다(31번).

4.3.6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 관련 경험 사례

수집된 총 64건의 사례 중 “직업적 행위를 함

〈표 9〉 지식재산권 존중 및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 추구 관련 경험 사례 건수

|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5번 내용                         | 사례 번호                  | 총 사례 수 |
|--|------------------------|--------|
| 지식재산권 존중 및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 추구 관련 경험 사례 | 29, 30, 31, 32, 57, 58 | 6      |

〈표 10〉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 관련 경험 사례 건수

|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6번 내용                    | 사례 번호                      | 총 사례 수 |
|-------------------------------------|----------------------------|--------|
|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 관련 경험 사례 | 33, 34, 35, 36, 62, 63, 64 | 7      |

에 있어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윤리선언의 내용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사례는 7건이 수집되었다(〈표 10〉 참조). 사서교사는 자신의 관심 분야가 학교도서관 장서개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34번) 교수학습 활동과 연관성을 지으며 합리화를 한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62번).

사서교사로서 정체성과 관련된 딜레마도 존재하였다. 사서교사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고자 수업에 집중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사서교사의 수업보다 잘 관리되는 도서관을 원하기에 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64번). 또 다른 사서교사는 학교는 학생부 기록을 잘하고, 동아리운영을 잘 하는 역량 있는 사서교사를 원하지만 사서교사인 본인은 장서개발과 목록작성을 위해 더 많은 역량을 기르고 싶은 딜레마가 있다고 하였다(63번).

학교라는 조직의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는 사서교사들의 딜레마도 언급되었다. 일부 교사와 학생들이 자신들의 세부적이며 전문적인 관심 분야의 도서를 다량으로 구입할 것을 신청하지만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딜레마가 된다고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역사학 중 특정 주제에 관련된 전문서적 또는 한의학의 특정 분야의 고가의 전문서적 구입을 희망한 사례와

전집 구입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35번).

#### 4.4 윤리적 딜레마 대처 유형

대부분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사서교사는 자신의 소신을 기준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4건의 사례 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대처한 경우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표 11〉 참조).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학교도서관 내에서 관련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면 자신의 “영역” 문제이므로 사서교사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한다고 하였다. 학교 문화가 교사들의 과목 영역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도서관도 하나의 영역으로서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딜레마를 사서교사의 판단만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사례에 따라서는 사서교사는 타협을 하였고 스스로 타협 여부와 타협의 정도를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사서교사가 해당 도서가 학교도서관 장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관내 열람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대출 불가 도서로 등록하여 학교도서관 공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2번).

학교 차원에서 학교도서관 장서 관련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학교도서관 담당자인 사서교사에게 판단을 하

도록 미루는 사례도 수집되었다(9번, 10번). 예를 들어 기독교 계열 학교에서 학부모가 기독교계 내에서 논쟁이 있는 특정 주제에 관한 도서 소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학교는 학교 차원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지 않고 사서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언급되었다.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동료 사서교사와 협의하여 함께 딜레마에 대처하는 사례들도 6건 수집되었다(〈표 11〉 참조). 이 연구를 통해 특히 『도서관인 윤리선언』 2번인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딜레마에 대해서 사서교사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협의한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또 교육청에서 논란이 있는 도서의 구입을 막는 수서지침에 대처하는 사례(12번)와 자살과 같이 심각한 문제와 직접 관련된 도서의 비치 사례(3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서교사는 학교, 교육청, 또는 외부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개최하는 독서 관련 행사에 참여할 경우 요구되는 사항 중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논란 있는 도서 제외와 같은 지침은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내용이나 자신들의 소신과는 맞지 않아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례가(51번, 52번) 2건이 수집되었다(〈표 11〉 참조).

〈표 11〉 윤리적 딜레마 대처 유형별 사례 건수

| 윤리적 딜레마 대처 유형      | 사례 건수 |
|--------------------|-------|
| 사서교사 자체 판단         | 56    |
| 동료사서교사/교사와 협의 후 판단 | 6     |
| 주어진 기준에 따름         | 2     |
| 합계                 | 64    |

## 5. 토론

상기 분석 결과를 관통하는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네 개의 함의(Implications)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교도서관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일부로서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를 전제로 한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반영된 도서관의 기본가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한다. 학교도서관의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자인 학생, 교사 및 학부모는 학교도서관이 교육기관으로서 학생 보호와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생들의 보호자의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 즉, 성인이 아닌 학생들의 보호와 교육을 우선하여 도서관 기본가치에 대해 타협과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수집된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는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을 반대한다”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도서관 내 특정 주제 또는 관점의 장서에 대한 문제 제기의 배경이 바로 학생 보호와 교육적 가치 수호였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내용과 관련하여도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서교사들의 윤리적 딜레마가 있었다.

둘째, 학교도서관이 학교라는 모 조직과 공적인 교육시스템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도서관의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과정에서 겪는 사서교사의 딜레마 사례는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인적·물리적 준비를 선행하지 않



고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드러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관계 기관 등이 도서관 기본가치인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을 반대”한다는 내용과는 다르게 정보 접근을 막는 사례들이 있었다. 학교도서관의 모조적인 학교와 관리·감독 기구인 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장서와 서비스의 다양한 주제와 관점 제공에 반대하는 외부인의 민원을 불편하게 여겨 수서기준을 배포하여 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도서관의 기본 가치를 지키려는 사서교사의 딜레마가 되었다.

셋째, 사서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현실적인 딜레마 또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사서교사의 “직업적 책무”와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및 응용을 위한 노력” 간에 괴리를 발견했다. 사서교사들은 “직업적 책무”를 다하고자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그리고 “응용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이것이 윤리적 딜레마가 되었다. 국외 선행연구의 결과(Luo 2016)와는 다르게 국내에서 이 분야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된 것은 흥미롭다. 또한,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명확히 인식되지 못하여 오는 딜레마도 간과하기 어렵다. 교과가 아닌 비교과 프로그램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사로서 명확히 인식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사서교사로서 사서교사 자신이 함양하고자 하는 전문성의 괴리도 사서교사들의 딜레마였다.

넷째, 학교도서관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윤리적 딜레마는 맥락 의존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서교사의 개인 판단은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Hauptman(1996)이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적 딜레마마다 윤리에 대한 사서교사의 개인 신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을 자신의 “영역”으로 여겨 소위 “문제” 작가 도서의 처리 등 대부분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사서교사 자신의 판단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딜레마 사례는 맥락 의존적(Ferguson, Thornley and Gibb 2016)이며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IFLA(2012)의 『사서 윤리강령』에 포함된 사서의 “중립성(Neutrality)”과 ALA(2008)의 『전문직 윤리강령』에서 명시한 “개인의 신념과 전문직 의무를 구분”과 관련하여 사서교사가 도서관과 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중립”을 지키며 판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서교사 “개인의 신념”을 “직업적 의무”와 구분할지에 대해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 6.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교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현황과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을 틀로 하는 설문지와 인터뷰 질문지를 설계하고 전국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서교사들의 윤리적 딜레마 경험 정도에 대한 현황과 경험 사례를

도출하였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들의 윤리적 딜레마는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선언 내용에 모두 걸쳐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사서교사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을 반대한다”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학생과 교사 등 학내 구성원 뿐 아니라 학부모, 외부인, 외부 기관 등이 학교도서관 장서의 적절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사서교사들이 대처해야하는 딜레마 사례뿐 아니라 사서교사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검열을 하는 딜레마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사서교사의 “직업적 책무”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과 응용을 위한 노력”을 적용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 경험은 도서관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일인 운영체제인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기회와 관련하여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 시키기도 했다. 국내에서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된 점은 국외 연구 결과(Luo 2016)와 달랐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사서교사에게 개인 대출 정보 보호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하여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 관점에서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는 타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넷째, 학교도서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 사서교사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많이 언급되었던 “문제” 작가의 도서 처리 등 학교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들은 사서교사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사서교사가 책임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학교 문화에서는 무리없이 받아들여졌다. 때때로 학교 밖 외부인, 외부 기관들과 관련한 딜레마가 발생하면 동료 사서교사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함께 논의하고 대처방안을 찾았다.

이러한 딜레마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네 가지 함의가 도출되었다. 첫째, 학교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에 대해 도서관의 기본 가치와 학생 보호와 교육적 가치가 충돌하면서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둘째, 학교도서관은 학교, 교육청 소속으로서 모 조직의 제도와 정책이 도서관의 가치와 차이가 나타나는 사례에서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셋째, 사서교사가 전문성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넷째, 도서관과 교육에 대한 사서교사의 개인적 판단이 학교도서관 현장의 개별적 윤리적 딜레마에 대처하도록 한다. 실제 딜레마 사례가 개별적으로 발생하며 각 사례가 맥락 의존적이므로 사서교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대처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딜레마 사례에 도서관의 기본가치가 반영된 『도서관인 윤리선언』 내용을 적용할 때 사서교사의 균형 있는 판단이 중요함을 알렸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사서의 중립성”(IFLA 2012), “개인적 신념”과 “직

업적 의무”의 구분(ALA 2008)에 해당하는 사서교사의 균형적 판단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Luo(2016)가 강조했듯이 사서교사들의 윤리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가 향후 사서교사를 위한 윤리 강령과 지침 개발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하며 나아가 타 관중 도서관 사서들의 윤리적 딜레마를 이해하고 도서관인 윤리 전반에 대해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국립국어원. 2021. 윤리적 딜레마. 『우리말샘』. <http://opendic.korean.go.kr>
- [2] 이명진. 2013. 2.18. 의사윤리 선언과 강령 그리고 윤리지침.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749>
- [3] 한국도서관협회. 2019. 『도서관인 윤리선언』. <http://kla.org>
- [4] 황영준, 정창호. 2014. 『(교사를 위한)교직윤리』. 서울: 교육과학사.
- [5] AASL. 2021. Intellectual Freedom Brochure. Retrieved January 2, 2021 from [http://www.ala.org/aasl/sites/ala.org.aasl/files/content/aaslissues/intellectual\\_freedom\\_brochure0212.pdf](http://www.ala.org/aasl/sites/ala.org.aasl/files/content/aaslissues/intellectual_freedom_brochure0212.pdf)
- [6] ALA. 2008. Code of ethics. Retrieved January 2, 2021 from <http://www.ala.org/tools/ethics>
- [7] Bopp, R. and Smith, L. 2011.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An Introduction. (4th ed.). Santa Babara, CA: Libraries Unlimited.
- [8] IFLA. 2012. Professional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Retrieved January 2, 2021 from <https://www.ifla.org/faife/professional-codes-of-ethics-for-librarians>
- [9] IFLA. 2020. National Codes of Ethics for Librarians by Countries. Retrieved January 2, 2021 from <https://www.ifla.org/faife/professional-codes-of-ethics-for-librarians>
- [10] Ferguson, S., Thornley, C. and Gibb, F. 2016. “Beyond Codes of Ethics: How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Navigate Ethical Dilemmas in a Complex and Dynamic Information Enviro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6(2016): 543-556.
- [11] Froehlich, T. J. (2000). “Intellectual Freedom, Ethical Deliberation and Codes of Ethics.” *IFLA Journal*, 26(4): 264-272.
- [12] Hauptman, R. 1996. Ethics and Librarianship. Jefferson, NC: McFarland.
- [13] Luo, L. 2016. 2016. “Ethical Issues in Reference: An in-depth View from the Librarians’ Perspective.”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55(3): 189-198.

- [14] Rubin, R. 2011. Ethical Aspects of Reference Service. In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An Introduction. (Bopp, R. and Smith, L. eds.). Santa Barbara, CA: Libraries Unlimited, 29-56.
- [15] Simpson, C. 2003. An Ethical Dilemma. In Ethics in School Librarianship. (Simpson, C. ed.). Worlington, OH: Linworth, 1-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0. Ethical dilemma. Woo-Ri-Mal-Sam. <http://opendic.korean.go.kr>
- [2] Lee, M. J. 2013. Medical Doctors Ethics Statement, Code, and Guidelines. Medical Newspaper.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749>
- [3]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9. Ethics Statement for Librarianship. <http://kla.org>
- [4] Hwang, Y. J. and Chung, C. H. 2014. Teachers Ethics. Seoul: Koyookkwahak-Sa.